

소금 언약

역대하 13:1-5, 찬송가 455장

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1 여로보암 왕 십팔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사십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팔십만을 뽑아서 맞섰다.
-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과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

1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

- 이 되고
-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사십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팔십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냐

3 본문 설명

남유다의 왕 아비야의 통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군세는 북이스라엘에 비하여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군 앞에서 이스라엘이 본래 다윗 왕가의 통치 하에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연설합니다.

아비야 왕이 의지하는 것은 군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왕가 사이의 언약입니다. 왕은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5절). 소금은 변질과 부패를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왕은 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힘 위에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서 있습니다(마16:18). 교회와 성도는 이 약속 위에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 성경사건

- 소금 언약(5절) : 소금 언약의 정확한 의미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이것이 영원하고도 효과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금은 향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유효케 하는 역할을 하였다(출30:35, 레 2:13).

4 삶의 나눔

5 함께하는 기도

6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요약

One-Point 목상

1 목상구절 절

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 오늘의 삶

4 적용

5 기도